

소방공무원이 지각한 외상경험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대한 차이 비교 연구

이서빈*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수료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차별화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상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을 고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이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개인 심리적 특성, 사회적 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서적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복지상담학적 접근으로서의 연구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차이 비교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치유가 될 수 있는 마음챙김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I. 서론

자연에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홍수, 산사태 관련 자연 재해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 의한 재난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신화영 외, 2015). 또한 최근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여러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해물질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재해발생이 나타나고 있다(이창원, 2005). 따라서 재해 사건이 발생되면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09)의 보고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재해 및 재난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와 구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 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재해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재난과 재해 사고에 대한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응급상황에 반복적으로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백미례, 2009). 또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한다. 그리고 자신이 재난과 재해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방공무원의 육체적·신체적 고통은 이로 말하기가 힘들다(문태영, 2013).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심각한 외상경험이 문제점으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재해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과 사회안전망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으로 새로운 소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외상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인과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 행동대처, 해리, 증상에 관련 외상경험을 사회복지상담학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한 연구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으로부터 오게 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

* art1327@naver.com

** jm9004@svu.ac.kr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차이 비교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치유가 될 수 있는 마음챙김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화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상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을 고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이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개인 심리적 특성, 사회적 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서적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복지상담학적 접근으로서의 연구는 필요하다.

II. 연구 배경

2.1.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김경식, 2011). 소방공무원의 업무영역은 소방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용천중, 2008). 소방공무원은 위급한 상황을 구조하고 구급 활동하는 특수 직업이며, 육체적·심리적 손상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2.2. 외상경험

외상이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은아·김성혜, 2017). 정윤경·김희진(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외상은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러한 반응을 야기한 사건을 외상사건(traumatic event), 외상사건을 겪은 것을 외상경험이라 하였다.

2.3. 직무소진

소진(Burnout)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탈진이며 소진으로 개인의 장기화된 감정적 요구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Pines & Aronson, 1988). 이와 관련하여 Cherniss(1980)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불만족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업무로부터의 정신적인 물러남을 직무소진이라고 정의하였다.

2.4. 우울

정영심(2000)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감정이 슬픔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상태에서부터 지속적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아가서는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그리고 Beck(1976)의 연구에 따른 우울(despression)이란 지각, 인지, 태도, 판단, 기억, 사고 등에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란 정서이다.

2.5. 불안

불안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지칭하며,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신금호, 2013). 이옥주(2002)의 연구에서는 불안이란 보편적인 심리현상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로, 신경증적 혼란 상태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확한 원인 없이 갖는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긴장 등으로 정의되며 특정 수준 이상의 불안은 업무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하였다.

2.6. 대인관계

김명화(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계속적인 상호 작용의 복합적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Heider(1964)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소수 즉,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했으며,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고 지각하는가,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 양식이라고 설명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소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이상 외상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보름간 조사하였고, 인천광역시 소재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180부를 배포하여 170부를 회수하였으며, 10부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60부를 이용하여 실증검증 하였다. 그리고 설문응답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측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차이 비교 검증을 위해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외상경험이 직무소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은경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검증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 관련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소진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삼(2013)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노출되고 격무에 시달리는 외근형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선현장에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경험과 우울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혜은 외(2012)의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반추 양식과 외상 후 성장, 우울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적 사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반추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영·구승신(2012)의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병사들이 복무 중 경험한 외상 사건 유형과 PTSD 증상,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경험 유형

중 단순외상보다는 복합외상 경험이 PTSD 증상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경험과 불안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은영·하은혜(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외상적 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를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경험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고가 대인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강민지·김광웅(2008)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중재 효과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외상경험에 의해 유발되거나 유지되는 청소년의 사회불안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미향·조영아(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 외상경험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경·정남운(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체계손상이 매개하는지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간 외상경험은 자기체계손상과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외상경험, 직무소진,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158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53명(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5명(3.2%)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76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48명(30.4%), 고졸 33명(20.9%), 대학원 졸업 1명(0.6%)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23명(7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이 35명(22.2%)이었다.

근무경력은 15년 이상이 7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11-15년 32명(20.3%), 6-10년 27명(17.1%), 2-5년 17명(10.8%), 2년 미만인 12명(7.6%) 순이었다. 근무처는 화재진압이 67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인 37명(23.4%), 구급대가 26명(16.5%), 구조대가 14명(8.9%), 운전이 12명

(7.6%), 상황실이 2명(1.3%) 순이었다.

지위는 소방위 45명(28.5%), 소방장 43명(27.2%), 소방교 32명(20.3%), 소방사 26명(16.5%), 소방경 9명(5.7%), 소방령 3명(1.9%)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교대가 108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일근이 40명(25.3%), 격일제가 10명(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성별 | 남 | 153 | 96.8 |
| | 여 | 5 | 3.2 |
| 교육수준 | 고졸 | 33 | 20.9 |
| | 전문대졸 | 48 | 30.4 |
| | 대학교졸 | 76 | 48.1 |
| | 대학원 졸업 | 1 | 0.6 |
| 결혼여부 | 미혼 | 35 | 22.2 |
| | 기혼 | 123 | 77.8 |
| 근무경력 | 2년 미만 | 12 | 7.6 |
| | 2-5년 | 17 | 10.8 |
| | 6-10년 | 27 | 17.1 |
| | 11-15년 | 32 | 20.3 |
| | 15년 이상 | 70 | 44.3 |
| 근무처 | 행정 | 37 | 23.4 |
| | 화재진압 | 67 | 42.4 |
| | 구조대 | 14 | 8.9 |
| | 구급대 | 26 | 16.5 |
| | 상황실 | 2 | 1.3 |
| | 운전 | 12 | 7.6 |
| 지위 | 소방령 | 3 | 1.9 |
| | 소방경 | 9 | 5.7 |
| | 소방위 | 45 | 28.5 |
| | 소방장 | 43 | 27.2 |
| | 소방교 | 32 | 20.3 |
| | 소방사 | 26 | 16.5 |
| 근무형태 | 격일제 | 10 | 6.3 |
| | 일근 | 40 | 25.3 |
| | 교대 | 108 | 68.4 |
| 계 | | 158 | 100.0 |

4.2.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표 2>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 구분 | 빈도 | 평균 | 표준 편차 | 등분산 | T/P | |
|--------|----|-----|--------|--------|-------|-----------------|
| 지각된 과각 | 남 | 153 | 1.2505 | .25300 | 1.529 | 1.320/ .189 |
| | 여 | 5 | 1.1000 | .14907 | | |
| | 합계 | 158 | 1.2458 | .25146 | | |
| 지각된 회피 | 남 | 153 | 1.2471 | .24790 | 3.195 | .421/ .674 |
| | 여 | 5 | 1.2000 | .14142 | | |
| | 합계 | 158 | 1.2456 | .24510 | | |
| 지각된 침습 | 남 | 153 | 1.4915 | .35540 | 2.235 | 2.322/ .022* |
| | 여 | 5 | 1.1200 | .17889 | | |
| | 합계 | 158 | 1.4797 | .35687 | | |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지각된 침습($t=2.322,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과각, 지각된 회피, 지각된 침습 전체에서 남성의 소방공무원 외상경험이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4.3.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소진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감소 전체에서 여성의 소방공무원 직무소진이 남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 차이

| 구분 | 빈도 | 평균 | 표준 편차 | 등분산 | T/P | |
|----------|----|-----|--------|---------|-------|-----------------|
| 정서고갈 | 남 | 153 | 2.3556 | 1.03345 | .151 | -.682/ .496 |
| | 여 | 5 | 2.6800 | 1.46014 | | |
| | 합계 | 158 | 2.3658 | 1.04478 | | |
| 비인격화 | 남 | 153 | 1.9444 | .91102 | .065 | -1.333/ .184 |
| | 여 | 5 | 2.5000 | 1.11803 | | |
| | 합계 | 158 | 1.9620 | .91918 | | |
| 자아성취감 감소 | 남 | 153 | 3.4809 | .85145 | 1.264 | -.831/ .407 |
| | 여 | 5 | 3.8000 | .54022 | | |
| | 합계 | 158 | 3.4910 | .84407 | | |

*p<.05, **p<.01, ***p<.001

4.4.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대인관계 전체에서 남성의 소방공무원 증상진단, 대인관계가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고, 불안 전체에서는 여성의 소방공무원 상태불안이 남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

| 구분 | 빈도 | 평균 | 표준 편차 | 등분산 | T/P | |
|------|----|-----|--------|---------|-------|----------------|
| 우울 | 남 | 153 | 1.8770 | .79706 | 4.224 | -.753/ .492 |
| | 여 | 5 | 2.3625 | 1.43369 | | |
| | 합계 | 158 | 1.8924 | .82140 | | |
| 불안 | 남 | 153 | 2.8775 | .35150 | 0.235 | .249/ .804 |
| | 여 | 5 | 2.8375 | .41127 | | |
| | 합계 | 158 | 2.8762 | .35211 | | |
| 대인관계 | 남 | 153 | 3.8824 | .78966 | .001 | -.049/ .961 |
| | 여 | 5 | 3.9000 | .81562 | | |
| | 합계 | 158 | 3.8829 | .78782 | | |

*p<.05, **p<.01, ***p<.001

V.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 우울,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위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소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이상 외상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이론적 시사점은 최근까지 진행된 소방공무원의 연구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외상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인과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 행동대처, 해리, 증상에 관련 외상경험을 사회복지상담학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한 연구만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예측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은 소방공무원이 정서적으로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상담학적 접근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음챙김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연구 표본의 일반화와 측정도구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연구의 표본이 일반화가 가능할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t

검정(차이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샘플이 차이가 있다. 이는 남자는 153개 이고 여자는 5개뿐이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제약이 있다. 셋째, 성별에 차이는 본다는 직급(근무연수) 또는 근무처를 2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상경험, 우울, 불안, 대인관계는 근무처와 근무연수에 영향을 더욱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감정에 대한 다각도적인 설문 문항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방공무원도 직무마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대상을 선정한 후 다양한 직무에 대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t검정(차이검정)을 실시할 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균형있게 설문을 받아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외상경험, 우울, 불안, 대인관계는 근무처와 근무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민지·김광웅(2008).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 또래관계의 중재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9(1), 87-101.
- 김경식(2011).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화(2010). 자기침묵, 대인관계, 우울의 관계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박경·박유미(2012). 노인의 스트레스 사건, 정서경험, 우울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연구*, 12(1).
- 문태영(2013). 소방공무원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8), 3815-3823.
- 박은아·김성혜(2017). 대학생의 대인외상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성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6(2), 133-155.
- 배미향, 조영아(201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5(5), 1849-1870.
- 배은경·김성완·김정화(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45(1), 63-89.
- 백미례(2009). 소방공무원의 직무별 외상 후 스트레스, *한국방재학회논문집*, 9(3), 59-65.
- 송은영·하은혜(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 신금호(2013).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불안 및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와 음악교수 효능감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146-164.
- 신화영·황순택·신용태(2015).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 PTSD 증상의 관계 : D 유형 성격과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11(6), 97-120.
- 용천중(2008). 소방공무원의 직업병에 관한 연구 :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주(2002). 불안 및 동기에 따른 정보처리 학습기술의 피드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삼(2013). 외근형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원(2005). 지방화시대 소방인력관리 개선방안 : 소방인력증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19 Magazine*, 통권185호, 104-112.
- 정영심(2000).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김희진(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5(4), 143-167.
- 조선덕, 박재범(2013).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련성,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3(5), 219-224.
- 한수경, 정남운(2014).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손상의 매개효과, *人間理解*, 35(1), 149-168.
- 한인영, 구승신(2012). 군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취약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314-322.
- A. Pines and E. Aronson(1988). *Career Burnout : Causes and Cures*, The Free Press, New York.
- Beck, A.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herniss, C.(1980). *Professional Burnout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 Heider,F.(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Row.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09). *The Provision for Safety Supervision of the Fire Services Ac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